

## 거울(mirror)의 이중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 -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 I. 서론
  - II. 거울의 예비적 고찰 : 배경 및 유래
  - III. 거울의 시선 : 보고 있는 자신을 보기 (Seeing oneself seeing)
  - IV.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송대섭, 이은영\*

### 초 록

본 논의의 출발점은 ‘자신을 본다’는 거울의 시선에 있다. 거울은 시각을 연장하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상들을 제공하면서, 닳음, 재현, 반성, 실재 등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자의식을 강화하는 등 수세기 동안 그 의미는 재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상의 또 다른 표면적 존재를 낳아, 거울 자체의 양면성이라는 실체와 허상 간의 모호한 간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오늘날 거울의 반사상에 대한 과도한 열중은 더욱 심화되어 표출된다. 복잡한 이중적인 구조로 채워진 거울의 시선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로, 주체와 대상, 대상과 주체와의 불분명한 경계를 낳으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국면들과 마주하며 교차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더욱이 거울의 반사적 의미는 회화와 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적 표현양식에 다양한 시선으로 떠오르는 모호한 수수께끼의 매체로서, 작가들에게 적지 않게 반영되며 창조적인 담론을 낳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거울의 시선이 세계의 상황 속에 서있는 이중의 영역에 반영된 불투명한 인간의 시선임을 제시하며,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거울의 역사적 흐름을 전개하여 문학, 예술 작품에 투영된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닳음의 반사적 구조를 드러낼 것이다. 이 과정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 즉 지각하는 주체와 거울에 반영된 타자의 시선임을 모색해봄으로써, 나와 세계가 상호 얽힘의 교차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추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거울(mirror), 시선(eyes), 보다(see), 교차(chiasme)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I. 서론

설치작가로 잘 알려진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1967~)은 거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거울은 환상적인 재료이다, 왜냐면 그들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거울은 잠재 의식에 대한 생각을 가진 매우 흥미로운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거울은 평행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그들이 수수께끼와 같은 무언가와 잘 알려진 어떤 것과의(-누구나 집에 거울을 가지고 있다-) 조합이기 때문에 거울을 좋아한다.”<sup>1)</sup>

거울은 이처럼 환상과 수수께끼를 야기하는 신비롭고 창조적인 매체이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마술적·주술적 도구로서의 힘이 부여되어 예언자나 마술사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되었다. 거울의 반사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수세기 동안 그 탄생과 더불어 기민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든 시선에 다양한 조명을 제공하며 새로운 존재를 투사한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의 표현대로 과연 거울은 그 안에서 살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무언의 구역인 것인가, 아니면 보는 자의 몸으로부터 보여지는 몸으로 이행하는 열려진 회로의 근거 위에서 나타난 감각적인 매체인 것인가.

우리는 서로 낯선 존재들로, 서로 다르고 서로 무관하게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역동적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반사상이 내 자신이 마주하는 첫 번째 타인(他人)임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보고 보여지는 거울의 이중적인 구조는 주체와 대상 간의 분리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본고

---

1) Eliasson's activism project empowers people through art (BY MOON SO-YOUNG, Dec 10, 2014),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8318>.

의 논의를 유발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거울이 지나온 역사적 탄생의 흐름과 문학과 예술 매체로서 반영된 거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보고 있는 자신을 보기(Seeing oneself seeing)’를 통해 자아형성의 첫 단계인 거울의 시선에 접근하여,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거울의 세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거울이 반영된 예술작품의 사례들을 제공하여 논의의 이해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소이는 ‘본다’는 것을 통해 거울의 복잡한 구조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봄으로써, 논의의 중심이 되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인 나와 타인, 즉 나와 세계에 이르러 인간이 세계에 둘러싸인 저 나만의 존재로서 자신의 흔적을 새겨가며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각의 주체로서 몸<sup>2)</sup>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조로 비춰주는 거울 또한 인간이 마주하는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의 공간임을 예기(豫期)해보고자 한다.

## II. 거울의 예비적 고찰 : 배경 및 유래

프랑스 혁명 당시 체포된 한 귀족 부인은 감옥에 두 가지 물건을 가져가길 원했는데, 하나는 새로 산 신이요, 하나는 판지로 만든 틀에 끼운 거울이었다. 이처럼 거울은 사회 계층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귀족들의 사치의 상징이며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였다.<sup>3)</sup> 고대 지중해 문명의 금속거울을 시작으로, 주석과 수은을 혼합하여 박막을 붙인 크리스탈(Crystal) 거울이 완성되기까지 거울의 보편화는 사실 더디게 진행되었다. 크리스탈 거울이 발명되기 직전까지 사용되었던 볼록거울은 유리 덩어리를 붙여 반으

2) 본고에서는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신체인 몸에 대해 전기의 몸과 후기의 살 개념을 ‘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거울의 역사』, 에코리브르, 2002, pp.11~12.

로 잘라 만든 성직자들의 조그만 빵모자 크기의 모양새로, 가운데가 튀어나와 곡면을 이루었다. 예컨대 이 볼록거울은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5~1441)의 회화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The Arnolfini Portrait, 1434)<그림 1><그림 2><sup>4)</sup>의 실내에도 볼록거울이 벽에 걸려 있다. 이 볼록거울은 보여지는 부분이 비록 작긴 하지만 볼록한 표면으로 인해 많은 범위의 상들을 집어넣는다. 당시의 사람들은 볼록거울의 상들이 변형이 심하다는 것을 몰랐다. 이 작품 속의 볼록거울 또한 보이지 않는 방의 옆 부분과 결혼식에 증인을 서고 있는 화가 자신의 모습이 거울 안에 담겨 있으며, 거울 위에는 “나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있었노라” (Johannes de eyck fuit hic)라고 써 놓음으로써, 볼록거울 안에 비치는 다른 증인들과 함께 자신이 증인임을 드러낸다. 이는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은 세계’로 화가와 거울의 시선들이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1.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그림 2. 세부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울의 기술은 1463년

4) <그림1>,<그림2>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e\\_Arnolfini\\_Portrait](https://en.wikipedia.org/wiki/The_Arnolfini_Portrait).

완성되었다. 12세기 베네치아(Venezia) 공국내의 무라노(Murano)에서 그 투명성과 광택이 마치 크리스탈과 유사하다 하여 ‘크리스탈’ 거울이라 불리는 하얗고 섬세한 거울이 장인들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이는 베네치아 유리장인 가문이었던 베로비에리가(Berovieri家)에 의해 1463년 기술혁신을 이루면서 유리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으로 약 2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국은 엄청난 부를 쌓으며 경제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1684년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Palace of Versailles)에 거울의 방을 완공하였는데 모두 306개의 거울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자신이 절대왕권의 절대적 주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거울의 방은 귀족들에 의해 경쟁하듯 만들어지는 사치의 역할을 도맡는다. 고급품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인 베네치아 거울은 1650년 이후 널리 퍼져, 17세기 후반 금속거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18세기에는 가구와 실내장식을 점령하여 ‘단장’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는다.<sup>5)</sup> 19세기 가성칼륨과 납 규산염으로 유리의 질이 향상될 때까지 이 크리스탈 거울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거울이었다. 거울이 오늘날에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필수품으로 보편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세월 느리게 진행되었다.

거울에 비친 반사상은 거울 자체의 양면성으로 인해 우리 문명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거울의 반사상에 대한 고찰은 고대의 플라톤(Platon, BC 428/427~348/347)에서 시작되었는데, 플라톤 이전의 사람들에게 거울의 반사상이 살아있는 형상으로 생각되었던 반면 그에게 반사상은 환상으로 야기되어 그가 눈속임이라고 주장한 화가의 그림보다도 못한 하등한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완전한 오류중의 오류로 보았다. 이에 반해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경~399)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률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알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거울을 들여다보게 하였다. ‘너 자신을 알라’

---

5)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p.31~110.

라는 이 말은 애초에 ‘너 자신을 배려하라’ 라는 상위의 격률을 실천하는 데에 따르는 방법 중의 하나<sup>6)</sup>로, 그는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술에 절은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였고,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경~AD 65) 역시 화가 난 사람의 손에 거울을 쥐어주며 추해지는 영혼으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고 한다. 중세에 이르러 거울은 “이상화된 모습이 아니면 경멸적인 투사”<sup>7)</sup>로 작용하여 신의 반사상이거나 악마의 도구로 변모한다. 거울의 반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430)를 비롯하여 중세의 영성문학에서 자기에게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모델로 제공됨으로서, 신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를 찾는 자성의 거울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25 ?~1274)는 “거울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원인을 보는 것이다. 결과 안에는 원인과 답음이 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을 통한 사변은 곧 명상(méditation)이 되는 것이다”<sup>8)</sup>라고 말하며 거울을 명상과 결부지어 신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신적인 경지로의 존엄을 얻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오직 신만이 완전한 거울로 여겨졌던 중세의 거울은 종교적 어휘로 제시되었다.<sup>9)</sup>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라보는 눈에 개별적인 시점을 갖게 되고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는데, 이때 거울의 구조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코기토 에르고쑸(Cogito ergo sum)의 반성적 사유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점 원근법의 발명은 화가의 시선인 소실점이 풍경과 일치함으로써

6) 진중권, 「위계 없는 차이의 향연」,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7, p.173.

7) Fr. Gamier, 『중세의 이미지의 언어(Le langage de l'image au Moyen Age)』, Le Léopard d'or, 1989, II, 36. (사빈 멜쉬오르 보네, 앞의 책, 136쪽에서 재인용)

8) Saint Thomas, 『대전(Somme)』, II,2,q.180 a.3 : H. Leisegang, 「영혼과 자연의 거울인 신(Dieu miroir de l'âme et la nature)」, 『역사·종교철학지(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 17, 1937에 인용. (사빈 멜쉬오르 보네, 앞의 책, 143쪽에서 재인용)

9)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p.128-143.

써, 화가의 시점이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알리는 시발점을 마련 해주었다. 여기에 자기반성과 더불어 르네상스 마지막 시기에는 화가가 자신을 그리는 자화상이 등장하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린다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자화상의 출현은 크리스탈 거울의 등장 이후로 추정되며, 거울이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선사하며 매체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의 자화상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싶다는 그의 명언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려진 그림으로, “역사적이며 동시에 미화된 표상을 통해 신의 반사상이며 신의 형상인 개인이 능동적 주체가 된 것”<sup>10)</sup>같은 사유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1519)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려하는 자의식이 배어있는 자화상을 그려냈는데, 이는 바로크적 근대적 자화상에 시발점이 되었다. 더욱이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광학혁명은 천문학자인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의 시각이 이루어지는 3단계(1. 동공의 격막을 통해 망막에 상이 맺히는 단계, 2. 시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신경 전달 단계, 3. 인간의 정신이 물체를 인지하는 정신적 단계)를 통해 대부분의 화가들에 의해 자화상이 더 확산됨에 이른다. 즉, 광학의 발달로 드디어 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눈도 하나의 거울임을 입증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 정신에 의한 인간세계의 구성이 표출되며, 데카르트가 케플러의 바통을 이어받아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은 그 세계를 인지하는 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인식론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데카르트의 보는 주체는 눈이 아니라 영혼, 즉 정신인 것이다.

17세기 이후 예술가의 자화상이나 주문된 초상화 작업은 ‘나르시스적 욕구와 반사상의 과잉 투자’를 불러오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 일명 셀카로 불리는 미화된 셀프카메라(selfie)의 위치와

10)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151.

유사하여, 거울의 반사상에 역사나 신화의 권위를 덧붙이는가 하면, 자기를 향한 시선에 자기 정체성을 피해가는 자기상과의 대립을 이루게 된다. 이는 즉 ‘가시성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려진 표상(représentation)을 바로 존재의 자리로 만든 것’이다.<sup>11)</sup>



그림 3. 일곱 가지 치명적 죄악과 네 가지 최후의 사건이 그려진 테이블 상판



그림 4. 세부

거울의 반사적 의미는 회화와 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적 표현양식에 다양한 시선으로 떠오르며 작가들에게 적지 않게 반영되었다. 예컨대 물에 비친, 혹은 거울이나 유리에 비친 자신의 반사상은 상의 징후를 읽는 점(占)을 통한 행위라며 중세의 악마에 관한 이론서에 죄로 묘사되고 있으며, 르네상스까지 성화(聖畵)속 거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베긴다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원숭이<sup>12)</sup>로도 출현한다. 플랑드르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Hieronymus Bosch, 1450~1516)의 <일곱 가지 치명적 죄악과 네 가지 최후의 사건이 그려진 테이블 상판>(Tablet of the Seven Deadly Sins and the Four Last Things, 1500~?)<그림 3><그림 4><sup>13)</sup>에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여인의

11)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p.160~185.

12)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228.

오만을 담았으며, 삼면제단화인 <지상의 쾌락의 정원>(Garden of Earthly Delights, 1490~1510 추정)<그림 5><그림5><그림 6><sup>14)</sup>의 오른쪽 날개인 ‘지옥’에서도 악마의 엉덩이에 붙어있는 거울 앞에서 잠든 게으른 인간이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있음<sup>15)</sup>을 볼 수 있다.



그림 5. 지상의 쾌락의 정원



그림 6. 세부

시나 소설에서도 거울의 반사상은 상상적인 잠재적 공간을 마련하여 환영과 현실이 반영된 상징적 매개로서 등장한다. 보르헤스의 <가려놓은 거울>은 거울로 인해 정신이상이 된 소녀의 일화를 통해 그가 느꼈던 거울의 공포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거대한 거울 앞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괴한 현실의 복제 또는 증식의 공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내리면 거울이라는 것의 엄정하고 지속적인 작동, 내 행동에 대한 모방, 그리고 그것의 우주적인 팬터마임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돌변해 버린다.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과 천사에게 했던 기도들 중에는 거울의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 있었다.…… 이따금 나는 현실이 조각조각 분산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곤 했다. 또 다른 때에는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나 거울 속에서 달리 변형

13) <그림3>,<그림4> 출처: 윌터 보싱, 김병화 옮김, 『히에로니무스 보슈』, 마로니에북스 | TASCHEN, 2007, p.25.

14) <그림5>,<그림6>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ieronymus\\_Bosch](https://en.wikipedia.org/wiki/Hieronymus_Bosch).

15) 윌터 보싱, 김병화 옮김, 앞의 책, p.58.

되어 버린 내 얼굴을 보게 되거나 앓을까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16)

이는 거울에 비친 환영으로 인해 “현실이 환상의 출발점이며 끊임없는 참조대상” 17)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평론가 김현(金玄)은 앙드레 지드의 『나르시스론 Le Traité narcissisme』을 통해 “물과 거울은, 나르시스(Narcissus)와 시인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대상-세계” 18)임을 제시한다. 나르시스는 자아의 전개를 기회로 삼지 못한 최초의 주인공으로, 그의 신화는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왔지만, 정체성 탐구의 상징성으로 거울과 바로 직결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李箱, 1910~1937)의 <오감도(鳥瞰圖)>에 나타난 거울 또한 존재확인의 근거로서의 이미지로 반영되어, 자아의 분열을 보여주며 거울에 비춰야만 존재하는 나 자신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는거울있는室內로몰래들어간다나를거울에서해방하려고그러나거울속의나는침울한얼굴로동시에꼭들어온다거울속의나는내게미안한뜻을전한다내가그때문에囹圄되어있드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어떨고있다  
19)

이처럼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인간이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동일자(同一者)이면서 타자(他者)인, 닮았으면서도 다른 것” 20)이며, 가시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거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정체성의

16)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황병하 옮김, 『보르헤스 전집 4 - 칼잡이들의 이야기』, 민음사, 1997, pp.20-21.

17)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환상성과 리얼리티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12호, (2007), p.99.

18) 金鵬九 外, 金光南, 「바라봄과 텅빔」, 『상징주의 文學論』, 민음사, 1982, p.158.

: 본고에서는 본명 ‘김광남(金光南)’ 대신 필명인 문학평론가 ‘김현(金玄)’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는 1962년 ‘자유문학’ 3월호에 ‘나르시스 시론(詩論)’을 ‘김현’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며 문단에 나온다.

19) 이상, 『이상전집』 2, 태성사, 1956, 41-2 (金鵬九 外, 金光南, 위의 책, 166쪽에서 재인용)

20)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 17.

구성체로 등장하며 모호한 수수께끼 매체로서 창조적인 담론을 낳는 것이다.

### III. 거울의 시선 : 보고 있는 자신을 보기 (Seeing oneself seeing)

“시선은 항상,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찾는다. 그것은 불안한 기호”<sup>21)</sup>라고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말한다. 이처럼 대상을 ‘본다’라는 말에는 눈이 가는 길과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눈은 오감 중에서 가장 발달된 인체의 중요한 감각 기관이며, 본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다. 우리가 흔히 ‘본다’는 것은 망막에 비치는 있는 그대로의 상을 말한다. 눈은 뛰어난 광학기구일 뿐만 아니라 뇌의 연장에 있어 상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생각하는 눈(the intelligent eye)<sup>22)</sup>’이라고도 한다. 더우기 ‘본다’라는 것은 곧 ‘안다’는 의미를 함축하여 서로의 뜻을 오가며 어우르기도 한다. 예컨대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history)’는 그리스어 ‘이스트레오(istreo)’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캐묻다’는 의미이다. ‘이스트레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처음에는 ‘보다’를 의미하였는데, 나중에는 ‘알다’라는 동사 ‘오이다(oida)’의 완료형 시제와도 연결이 된다.<sup>23)</sup> 주로 ‘알다’의 현재동사로 사용되는 ‘오이다’는 원래 ‘보다’를 뜻하는 ‘에이돈(eidon)’의 과거형이기도 하다.<sup>24)</sup> 또한 ‘인식’이라는 그리스어 ‘에피스테메(Episteme)’도 모든 학문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된 사고방식을 뜻하면서 ‘보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쳐다본다’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동사 ‘스킵테온(skepton)’의 명사형 ‘스킵시스(skepsis)’에 대

21) 롤랑 바르트, 김인식 편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3, p.111.

22) 최정훈 외 공저,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1995, p.148.

23) 로버트 카플란, 이상욱 역, 『지중해 오디세이』, 민음사, 2007, p.34.

24)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9, p.31.

해, 이는 눈과 연관이 있는 단어로써 시각적 인식, 관찰, 경계, 주시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유래한 ‘회의주의’, ‘회의’, ‘의심’을 뜻하는 ‘스keptisi즘(skepticism)’이라는 영어 단어를 거론하며, 인간의 눈이란 전혀 믿을 수 있는 감각이 아니라는 것, 즉 눈은 ‘회의’의 대상으로, 눈이 초래하는 단편적인 작란(作亂)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sup>25)</sup> 예컨대 라틴어 ‘보다(video)’가 ‘시각(visus)’과 ‘힘(vis)’을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임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눈을 통해 대상을 개념화함으로써 ‘봄(vision)’을 통한 ‘삶’으로 이어진다. 즉, 인간 개개인은 보고 알아야 하는 소중한 역사이며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평하고 투명한 표면에 반사된 닳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술가는 그 닳음인 자기 얼굴을 탐구하여 자화상에 자신의 내적 자아를 담아 표출하기도 한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는 어린 시절 처음으로 타인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거울 앞으로 달려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자신의 찡그린 얼굴이 괴물임을 거울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낯섬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거울은 이처럼 수수께끼와 같은 모호한 얼굴로 인간의 자아형성 과정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1936년에 라캉(Jacques-Marie-Émile Lacan, 1901~1981)이 발표한 거울단계이다. 그 과정을 간략하자면, 유아는 ‘나’ 기능 형성자로서 거울을 손에 넣는다. 생후 6개월 된 유아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파편화된 자기의 모습을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 처음 접하면서 자아를 대상화하게 된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에 놀라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불안과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자기와의 완전한 의미의 동일화(identification) 단계를 거친 유아는, 언

---

25) 임철규, 앞의 책, p. 35.

어를 매개로한 상징적인 질서의 세계 속에 진입하면서 타자와의 동일화라는 변증법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사회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다.<sup>26)</sup> 이처럼 라캉은 거울이라는 매체가 인간의 자아형성 단계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시녀들



그림 8. 세부

거울의 상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의 오른손은 왼손으로, 왼손은 오른손으로 보여준다. 자신이 바라보는 주체가 되는 한편, 시선을 불러오는 대상으로써, 거울을 바라보는 주체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다는 모호함을 이끌며 서로에게 접근한다. 그러므로 거울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나 자신은 거울에 반영된 자기상을 대상으로, 즉 그곳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타인을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거울의 눈은 타인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자신을 보기(seeing oneself seeing)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거울은 신비로운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주체와 대상이 유동하며 순환한다. 한 예로,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de

26) 자크 라캉, 권택영 역(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14, pp.40-51.

Silva y Velázquez, 1599 ~1660)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를 잘 포착하였다. 광학적 섬세성이 엿보이는 작품<시녀들>(Las Meninas, 1656-1657)<그림 7><그림 8><sup>27)</sup>에는 당시 사치품이었던 거울이 등장한다. 거울안에 어렴풋이 비추는 인물들, 이는 국왕 펠리페 4세(Felipe IV)부부의 형상이다. 그들은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 인물들을 보고 있으며, 거울은 이들의 중요성을 암시하듯 화폭의 중앙에 있다. 거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폭 밖에 있지만 관람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은 화가 자신의 눈과 국왕 부부의 눈, 관람자의 눈이 실재와 반사상의 여러 면으로 겹쳐지면서 시선과 공간이 확대되고, 현실의 이질적 특성을 제시하며 교차 순환되는 시선을 통해 현실을 드러낸다.<sup>28)</sup> 또한 거울은 자기상의 또 다른 표면적 존재를 낳아 시각을 연장하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상들을 제공하면서, 보이는 것, 외관, 실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정신과 반성적 사유의 훈련을 거쳐 자의식을 강화하기도 한다. 자의식이란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눈이 곧 나의 거울로 작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자의식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거울의 힘으로 삶을 살았던 댄디즘(Dandyism)의 경우가 그러하다. 댄디즘은 18세기 사회적으로 거울이 확산되면서 교양과 매너가 시대적 화두를 낳으며 19세기에 양산된 말이다. 댄디(Dandy)는 항상 거울을 본다. 흔히 멋쟁이를 의미하는 댄디는 거울 앞에서 삶을 살며 외관의 허영을 미덕이라 생각하고 의복을 피부처럼 몸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르시스와는 달리 자신의 모습에 매혹되거나 사랑하진 않는다. 나르시스는 타인의 매개를 거부한 반면, 그들은 소중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끊임없이 물화(物化)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sup>29)</sup> 이처럼 18세기에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27) <그림7>,<그림8>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as\\_Meninas](https://en.wikipedia.org/wiki/Las_Meninas).

28) 미셸 푸코, 김현 옮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p.120.

29)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p.198~215.

후 세속적 삶에서 문학적 삶으로 옮겨와 시대의 위선과 권태에 맞서 조화로운 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내적 응시에 몰두하게 된다. 이는 근대적 주체가 탄생하여 개인적 주체가 바탕을 이루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바라보는 자신의 눈에 개별적인 시점을 갖게 되면서 자의식이 형성되고, 이때 거울의 구조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즘의 반성적 사유로 전개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반성적 사유의 근본형태로, 인간의 본질을 정신에 두고 나 자신의 정신적 반성을 철학적인 사유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근대 철학의 주체인 ‘정신’ 이, 개인적 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자기 성찰을 형성하는 틀을 제공해준 것이다.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정신적인 것, 즉 영혼으로 보는 것처럼, 데카르트가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을 찾기 위한 자기 성찰은 거울의 반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앞서 언급된 뒤러의 자화상은 데카르트의 근대적 주체가 선구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즉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신체보다는 정신적 작업인 성찰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하는 무한 반복의 코기토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모든 만물을 코기타치오네스(cogitationes), 즉 사유의 내용으로 만들어, 지각되는 사물과 몸, 감정의 대상, 상상의 대상, 그리고 여기에 지각, 감정, 의지 상상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의식작용 또한 포섭한다.<sup>30)</sup>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자신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살로 된 감각적인 신체가 아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광학적인, 자동적으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다. 데카르트의 거울 속 이미지는 숨 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단지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게 봄(vision)은 몸에 주어진 기호들을 해독하는 사유이며, 본다는 것은 눈에 들어온 기호들을 시신경으로 전달하여 판독하는 것일 뿐이다. 본다는 건 주체에

30)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7, p.395.

의해, 즉 인간의 눈에 의해 대상 자체가 변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31)</sup>

이에 반해 메를로-퐁티는 몸을 지각의 주체로 내세우며 주체와 대상, 주체와 객체, 즉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 없이 통일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곧 몸을 중심으로 보는 자를 보면, 나 또한 보는 것 속에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음을 뜻한다. 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의 이중적인 구조는 자기 자신을 바라봄과 동시에 타인의 눈에 의해 보여지는 것, 즉 보는 자가 곧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거울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내밀한 공간을 부여하며 사회적 시선에 관계의 흐름을 마련해준다.

#### IV.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

메를로-퐁티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데카르트와는 달리, 몸을 지각의 주체로 삼으며, 몸과 마음이 통일된, 정신이 깃들여 있는 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게 본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어떠한 대립이나 분리도 없이 서로를 반영해주는 존재론적 조화를 의미하는 지각’<sup>32)</sup>을 말한다. 데카르트에게 주체란 그저 정신에 덧붙여진 타자에 불과하였지만, 메를로-퐁티에게 신체란 의식 땀에 항상 같이 움직이므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식, 정신, 영혼을 몸의 변형체인 몸의 파생물이라고 그는 주장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몸을 인간의 근본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세계전체를 몸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몸철학은 기본적으로 순수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부정하는 내재적인 철학으로 몸과 사물의 만남, 즉 교감을 중시한

31) M.메를로-퐁티, 오병남 옮김, 앞의 책, p.305.

32) 모리스 메를로 퐁티, 김화자 옮김,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14, p.118.

: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적 코기토를 비판하며 거기에 ‘살(chair)’이라는 ‘신체의 코기토’를 대립시키며 고정된 눈이 아닌 움직이는 신체의 안구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의 지각임을 밝힌다.(진중권, 앞의 책, p.190.)

다. 인간의 몸을 감각하면서 감각되는 감각덩어리로 표현하며 본다는 것 자체를 만짐과도 같다고 여겨, 보고 보여지는, 만지고 만져지는 세계에 의해 인간은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이러한 입장은 본고의 주제인 거울의 시선을 통해 보고 보여지는 세계의 논의에 대해 충분한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울은 “내부를 외부로 보내고 또 외부를 내부로 보내면서 전체를 하나의 광경으로 만든다.”<sup>33)</sup> 그러나 인간은 거울의 반사상에 비추어 스스로를 보기만 하는 존재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나의 몸은 타인의 몸에서 유래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내 자신의 몸은 내가 보고 있는 타인의 몸에 투사될 수도 있다. 이에 ‘인간은 인간에 대한 거울’이다. 거울 그 자체는 사물을 하나의 광경으로 바꿔놓고, 다시 그 광경은 하나의 사물로 바꿔 놓으며, 나 자신을 타자로, 타자를 내 자신으로 바꿔 놓는 우주적인 마술도구인 것이다.<sup>34)</sup> 더욱이 인간 개개인은 한 곳만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매순간 모든 방향에서 세계가 바라보는 방대한 시선들을 지속적으로 맞으며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존재이다. 즉 “우리의 시각은 보기만 하는 시선(eye)이 아니라 보여짐(gaze)이 함께하는 중첩적인 것”<sup>35)</sup>이다. 이에 바르트는 정보와 관계, 소유와 같은 이 세 가지의 보는 시선에 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교환하며 시선에 의해 만지고 다다르는, 감싸 안고 감싸지는 결합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한다.<sup>36)</sup> 이처럼 우리의 몸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통일된 감각적인 존재로 상호 교차되어 투사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주체와 대상, 즉 세계와의 관계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작업에는 거울이 자주 이용된다. 대표적인 작품 <날씨 프로젝트>(The weather project, 2003)<그림 9><sup>37)</sup>

33)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앞의 책, p.123.

34) M. 메를로-퐁티, 오병남 옮김, 앞의 책, p.302.

35)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앞의 책 p.33.

36) 롤랑 바르트, 김인식 편역, 앞의 책, pp. 110~111.

37) <그림 9>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e\\_Weather\\_Project#The\\_](https://en.wikipedia.org/wiki/The_Weather_Project#The_)

는 전시장 천장에 거울을 붙여놓음으로써 관객에게 거울에 비치는 개개인의 반사상을 통해 자신이 타자와 서로 어울려 사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끔 유도한다. 여러 주체들이면서 모든 대상들로 구성된 신체는 세계와 서로 소통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역할을 갖아야 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나의 ‘지금’ 은 당신의 안에 있거나, 혹은 당신의 ‘지금’ 은 내 주위에 있다”<sup>38)</sup>고 말하며, 이는 역으로도 성립되는 관계로써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얽힘 관계, 즉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교차(Chiasme)<sup>39)</sup>관계는 뒤집어지는 장갑의 이중적 표상처럼 가역적으로 이루어지며 같은 세계에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이는 나와 타인, 나와 세계, 그리고 지각하는 것과 지각된 것 사이의 교환이 서로가 서로에게 확산되고 출몰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 는 ‘보는 자와 보는 자의 세계’ 인 것이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의 <구름문>(cloud gate, 2006)<그림 10><sup>40)</sup> 또한 자신의 신체가 반영된 거울의 표면을 통해 관람자인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만지며 주체가 되는 동시에 대상인 객체로서 존재한다. 이 또한 보는 것과 보는 것 사이의 교차인 셈이다.

어느 상황에서도 마주 보는 세상은 일상에 매번 마주하는 거울 조차도 우리를 관계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인간의 시선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을 단지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주변의 것들과 관계 지움으로써<sup>41)</sup> 상호 교차되며 살아가는 것이다.

---

weather\_project.

38) Olafur Eliasson, edited by Daniel Birnbaum and Madeleine Grynstejn, 『The Weather Forecast and Now』, 『Olafur Eliasson』, London and New York, 2002, p.140.

39)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 최의영 옮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東文選, 2004, p.378.

40) <그림 1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loud\\_Gate](https://en.wikipedia.org/wiki/Cloud_Gate).

41) 존 버거, 강명구 역, 『영상과 이미지 언어』,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나남, 1993, p.37.



그림 9. 날씨 프로젝트



그림 10. 구름문

인간은 자신의 몸과 타인들의 몸이 하나의 체계, 하나의 현상을 이루어, 그 속에서 나와 타인의 몸이 동시에 거주하며 전체적인 실존의 세계에 거주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동일한 차원의 타인의 주체성인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é)이 성립한다. 나는 타인들에게로 이미 스며들어 있고 타인들 역시 나에게 이미 스며들어 있는 세계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타인의 몸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의미는 나의 밖에 있다”<sup>42)</sup>는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세계는 “바깥에 지점을 두어야만 안을 가질 수 있고, 안의 세계를 가져야만 바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sup>43)</sup> 몸에 거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즉 “각각의 나는 모든 다른 나들의 교차점”<sup>44)</sup>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몸은 거울의 안과 밖처럼 내부와 외부가 만나 나누어 가지는 자유 속에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거울의 구조는 ‘내 몸에 대한 내 관계의 확장’이며, 자기로부터 비친 추출물을 얻

42) 메를로-퐁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15, p.681.

43) 조광제, 앞의 책, p.390.

44) 조광제, 앞의 책, p.443.

는<sup>45)</sup> 공간인 것이다.

나와 세계는 나 자신의 몸도 하나의 세계이므로, 세계가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보여지고 사유되는 것은 세계를 통해서이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선택하고, 세계는 우리를 선택한다.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계가 항상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나의 몸은 이미 세계에 의해 구성되며 그렇게 세계에 의해 구성된 몸은 다시 세계를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다.<sup>46)</sup> 우리는 매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한데 얽혀 관계를 드러내며, 그 상황을 헤쳐 나가면서 항상 여기와 거기에 있는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sup>47)</sup> 우리의 몸은 그 속에 잠겨있고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 속에 살면서 누구나 이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체인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상황이라는 곳에서 단 한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상황이 해소되면 이미 또 다른 상황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게슈탈트(Gestalt)<sup>48)</sup>의 전경과 배경이 형성되고 해소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경으로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배경으로서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전경과 배경이 고정돼 있지 않은 채 전경이 배경이 되어 물러나고 배경은 전경으로 떠오르며 맥락이 뒤바뀌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세계 주변의 상황들 속에 우

---

45)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앞의 책, p.368.

46) 조광제, 앞의 책, p.441.

47) M.메를로-퐁티, 오병남 옮김, 앞의 책, p.319.

48) 독일의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ie)은 맥락을 구체적인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인간이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각 부분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형태, 즉 게슈탈트(Gestalt)로 파악한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통합된 형태를 가진 정리된 구조를 말한다. 메를로-퐁티는 그의 작업노트에 게슈탈트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 내 몸은 하나의 게슈탈트이며, 또한 내 몸은 모든 게슈탈트 가운데 공(共)-현전(co-présent)하고 있다. 내 몸은 하나의 게슈탈트이다. …… 또한 동시에 내 몸은 모든 게슈탈트의 구성 성분이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앞의 책, p.298.)

리는 모두 들어가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는 각자의 몸이 세계로 투사하는 과정에서 충만한 삶으로 덧대어져 세계 속의 몸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본고의 논의는 거울의 이중적인 구조를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세계에 대해 전개한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와는 다른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체계의 매커니즘은, 인간이 매순간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인식과 행위를 통해 세계를 향해 몸이 열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알기 위한 첫 번째 순서일지도 모른다. 거울은 꿈과 실제 사이에 유희의 공간을 만들며, 신기루와 같은 반사상 속에 자신을 투사하면서 스스로를 가늠하기도 한다. 자기인식의 도구로서의 거울의 문제는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를 바로 수반한다. 이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즉 보는 자가 동시에 보이는 자가 되는 수수께끼와 같은 교환 체계 속에서 반복과 순환을 거듭하며 상호 교차가 일어나는 몸, 즉 가역적으로 소통이 되는 몸에 의해 세계를 담아내는 것이다. 곧 거울의 시선은 나 자신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다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소통의 궁극적 본질이며, 나와 세계라는 구체적인 경험의 장에 존재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의 과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진 동일자(同一者)이면서 타자(他者)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메를로-퐁티의 몸에 대한 사유처럼 단지 바라봄으로써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몸은 세계에 둘러싸여 존재하며 저 나뉘는 깊이로 층을 만들어 자신의 흔적을 새겨가고 있는 것이다. 보고 보이는 작은 시선, 작은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들과의 이러한 교차관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에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열해준다. 대상이나 세계

에 대한 시선은 우리의 몸과 같이 언제나 생성 중에 있으며, 주체와 대상적 체험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세계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울 같은 투사의 유희 속에서 진실과 허구의 다양한 시선을 느끼며 잠재적인 존재로서의 나에게 매순간 그 물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존재란, 비록 내게 보이는 것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과 겹쳐질 수는 없어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을 향해 열리게 하고, 내게 보이는 것과 타인에게 보이는 것 양쪽 모두 동일한 감성적 세계를 향해 열리게 하는 불가사의한 잠식” 49)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즉 인간이 본다는 것은 교차로에서 서로 낯선 존재들의 모든 국면들과 공존하며 마주하는 것이다. 기차의 선로들이 평행선의 등거리로 있기 위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세계 또한 나의 멀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많은 국면들은 세계가 되기 위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탐구를 요구하는 존재의 가지들이며, 세계의 물음에 스스로 토대를 마련하는 진정한 언어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울의 반사상을 통해 살아있는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몸이 다양한 시선들에 의해 어떠한 의미로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운위되어야 할 함의임을 의미존재론적인 물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세계와 더불어 공존하는 우리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의 과정임을 일러둔다. 본고의 제한된 지면에 충분히 심화된 논의를 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숙지하고 있는 바, 이는 서로의 매듭으로 거주하는 존재의 가지들이 다양한 형태를 주고받는 유합된 관계의 대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

49)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앞의 책, p.313.

## 참고문헌

- 金鵬九 外, 『상징주의 文學論』, 民音社, 1982.
- 모리스 메를로-퐁티, 김화자 옮김,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14.
- 모리스 메를로-퐁티, 남수인·최의영 옮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東文選, 2004.
- 메를로-퐁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15.
- 미셸 푸코, 김현 옮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로버트 카플란, 이상욱 역, 『지중해 오디세이』, 민음사, 2007.
- 롤랑 바르트, 김인식 편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1993.
- 사빈 멜쉬오르 보네, 윤진 옮김, 『거울의 역사』, 에코리브르, 2002.
- 월터 보싱, 김병화 옮김, 『히에로니무스 보슈』, 마로니에북스 | TASCHEN, 2007.
-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9.
- 자크 라캉, 권택영 엮음 (민승기·이미선·권택영 옮김),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14.
-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이학사, 2007.
- 존 버거, 강명구 역,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나남, 1993.
-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7.
- 최정훈 외 공저,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1995.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황병하 옮김, 『보르헤스 전집 4 - 칼잡이들의 이야기』, 민음사, 1997.
- M. 메를로-퐁티, 오병남 옮김, 『現象學과 藝術』, 서광사, 2011.
- 이윤희, 「애니메이션의 환상성과 리얼리티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12호(2007), pp. 87-102.
- Olafur Eliasson, (eds.) Daniel Birnbaum and Madeleine Grynstejn, “Olafur Eliasson”, London and New York, 2002.
- MOON, SO YOUNG, “Eliasson’ s activism project empowers people through art”, 『Korea Joongang Daily』, Dec 10, 2014, <http://korea>

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8318, 검색어: Olafur Eliasson, 2015.08.01.

Wikipedia, The Arnolfini Portrait, [https://en.wikipedia.org/wiki/The\\_Arnolfini\\_Portrait](https://en.wikipedia.org/wiki/The_Arnolfini_Portrait), 2015.08.11.

Wikipedia, Hieronymus Bosch, [https://en.wikipedia.org/wiki/Hieronymus\\_Bosch](https://en.wikipedia.org/wiki/Hieronymus_Bosch), 2015.08.11.

Wikipedia, Las Meninas, [https://en.wikipedia.org/wiki/Las\\_Meninas](https://en.wikipedia.org/wiki/Las_Meninas), 2015.08.11.

Wikipedia, The weather project, [https://en.wikipedia.org/wiki/The\\_Weather\\_Project#The\\_weather\\_project](https://en.wikipedia.org/wiki/The_Weather_Project#The_weather_project), 2015.08.11.

Wikipedia, Cloud gate, [https://en.wikipedia.org/wiki/Cloud\\_Gate](https://en.wikipedia.org/wiki/Cloud_Gate), 2015.08.11.

## ABSTRACT

### A Study on Dual Structure in a Mirror - Revolve around the Relations between 'A Person Who sees' and 'A Person Who is Seen' -

Song, Dae-Sup · Lee, Eun-Young \*

The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resides in the 'eyes' of mirror in a sense of seeing the self reflected in a mirror. The meaning of mirror has been evolved over the centuries while strengthening its sense of identity by bringing up some questions for resemblance, reproduction, self-reflection and reality. A mirror has also extended its vision and provided with a range of images that the self can't have. In this regard, looking into a mirror has been a sustained focus of attention by creating another ostensible being of self-image. This shows the two sides of mirror, which reveals an ambiguous gap between substance and illusion. An excessive immersion in a reflected image in a mirror is intensified and expressed today. The eyes of mirror consisting of a complex dual structure show relations between a person who sees and a person who is seen, which draws a hazy line of demarc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is opens up the possibility of the world of chiasme, where you could face all the aspects being from the eyes of others. Furthermore, the meaning of the reflection in a mirror has formed a creative discourse as an enigmatic medium that creates a variety of 'eyes' in various forms of aesthetic expression like paintings and literature.

I accordingly suggest that the 'eyes of mirror' is the ambiguous 'eyes of human being' reflected in two territories of the world. Therefore, I will presen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erspective on the mirror to take a concrete approach in which it opens up the reflective structure of resemblance through a series of examples projected onto the literary and artistic productions. This study will serve as ruminations on the fact that your life is being existent in 'chiasme' of mutual entanglement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by investigating relations between a person who sees and a person who is seen, in other words, relations between the perceiving subject and the eyes of others reflected in a mirror.

Key Word : Mirror, Eyes, See, Chiasm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3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송대섭  
홍익대학교 판화과 교수  
(04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Tel : 02-320-1208  
3000sds@hanmail.net

이은영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판화전공) 박사과정  
(04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Tel : 02-320-1208  
gypsygrey@naver.com

논문투고일 : 2015.10.31.

심사종료일 : 2015.11.19.

게재확정일 : 2015.11.26.